

'행복한 가정 만들기' 도와드려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화복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원할 것이다. 이제는 이런 가정의 행복도 국가가 챙기는 시대가 왔다.

"정말 복지영역에 가정도 포함되나?" 물론이다. 이혼, 별화 등의 가정 파괴로 범죄·자살이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실적으로 언제나 화복한 가정은 존재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다 보니 구성원 간의 이견도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전처럼 부모·남편의 권위를 앞세워 아이나 아내에게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즉, 구성원간 평등을 중시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개개인의 행복지수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인 것.

이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11월 23일 개소한 중앙중앙를 비롯해 종로구,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가족상담사업, 생애주기별사업, 가족문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사업 등이 있다. 중앙센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가족문제 예방과 감소 및 위기 치료 ▲가족 잠재력과 자립능력 개발 ▲세대별 욕구충족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가족상담사업은 부부, 자녀양육, 고부갈등, 재혼 등 가족관계 전반에서 고통받는 요인에 대해 상담을 펼치는 사업이다. 전문 상담가를 통해 가족 간 불화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생애주기별사업은 결혼 전부터 시작된다. 결혼준비교육은 예비 부부가 배우자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결혼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 위기에 처한 부부, 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곳?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부-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 사진제공=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모-자녀간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간 대화중재교육, 현대 가족에서 기대되는 아버지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아버지 교실 등도 운영되고 있다.

가족문화문화조성사업으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마련돼 있다. 가족이 힘을 합쳐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가족봉사단 활동,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족사랑 캠페인 등이 여기 포함된다.

가족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장애인가정 등이 특히 주목해야 할 사업이다. 양육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통해 이들 가정 구성원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한 장치기 때문이다. 아직 시범운영 중인 곳이 많으므로 우

선 중앙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한부모·조손·기러기·실직자가정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지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아버지 교실 등도 운영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조모임' 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 장애이가족,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조모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정보, 감정적 유대감 등을 얻고 후속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중앙에서 장소와 예산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

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한가요?"다. 그렇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취지 자체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영역이 저소득층에서 일반인까지 대폭 확장됐다고 보면 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무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은 지역에 따라 소정의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다. 상담료는 자조모임이나 가족봉사단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 많은 부산, 천안 등 5개 지역에서는 '당당한 나, 행복한 우리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한부모 가정 지지에 힘쓰는 식이다.

각자의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서울 22개소를 포함, 전국 66개소(중앙 포함)가 운영되고 있는데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www.family.net.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02-3141-9494)로도 가능하다.

중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갈등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해결이 힘든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 의지를 갖도록 지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센터는 보편적인 가족들이 대상으로 부담없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불교계 수탁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02)2678-2193
서울 종로구: (02)764-3524
서울 중랑구: (02)435-4142



일산노인복지관 김학석 부관장

일산에는 '호수공원'이라는 명물이 있다. 일산 주민들의 놀이터도, 문화 공간도 되는 공간이다. 그 호수공원에서도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이다). 일산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좋고 친절하기로 소문났다'고 정평이 난 그곳. 복지 18년차 김학석 부관장(43·사진)은 오늘도 그곳에서 어르신들에게 미소로 먼저 인사하며 반긴다.

“‘텅빈 충만’한 삶 누리고파”

김 부관장은 어르신들에게 앉아서 인사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노인복지 마음가짐의 근본이다.

"맘도 상냥해졌지만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다. 자연히 점심 시간도 어르신들과 보내는 일이 잦다. 어르신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다. 관장님, 부하 직원까지 두루 그를 좋아한다.

"회사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희 복지관은 직원들 사이가 참 좋아요. 저도 '재미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저는 그것이 관리자로서의 역할 중 하나라 생각

하구요."

물론, 그도

엄격할 때는 '연꽃마을'과 인연 덕에 불교 입문

산다는 것

은 불가능할 법하다. 김 부관장은

"조금 덜 가지고 나누면 충분히 행복

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런 생

각에 가족들의 지지도 전폭적이다.

그의 아내도 중앙장애인시설에서 일

하니 더욱 그러할 터.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학교에서 학

부도 강연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

워해요. 저는 그것에 고맙고요."

그는 요즘 원고를 하나씩 쓰고 있

다. 사회복지 현장의 에피소드가 주

내용이다. 사회복지사로 정년을 마

칠 때까지 그는 계속 이 작업을 하고

했어요."

그는 원래 체육학도였다. 체육대

학에 진학한 스무 살 어느 날, 문득

회의를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

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회복지

공부를 위해 체육대를 1학기만 다니고

그만 뒀지요"



체육대에 다닐 때는 고민이 휩싸였

던 그가 복지를 선택한 후에는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니 역시 사람은

자기 같길이나 따르려 있는 모양이다.

범인(凡

사이 실생

활 속에서

엄격하다. 꿈

산다는 것

은 불가능할 법하다. 김 부관장은

"조금 덜 가지고 나누면 충분히 행복

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이런 생

각에 가족들의 지지도 전폭적이다.

그의 아내도 중앙장애인시설에서 일

하니 더욱 그러할 터.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학교에서 학

부도 강연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

워해요. 저는 그것에 고맙고요."

그는 요즘 원고를 하나씩 쓰고 있

다. 사회복지 현장의 에피소드가 주

내용이다. 사회복지사로 정년을 마

칠 때까지 그는 계속 이 작업을 하고

했어요."

그는 원래 체육학도였다. 체육대

학에 진학한 스무 살 어느 날, 문득

회의를 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

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회복지

공부를 위해 체육대를 1학기만 다니고

그만 뒀지요"

클·사진=김강진 기자

“암 투병 남편 수발 중 뇌종양 판정...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야죠”

생명나눔 선정 12월의 환우 김응심씨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은 남편을 간병하느라 지치고 힘들어서 생긴 두통이라고 생각했다. 두통약을 하루에 몇 알씩 먹었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두통이 지속되고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의사선생님을 찾아가더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을 들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가 12월의 환우로 김응심(50)씨를 선정했다.

떨리는 가슴으로 정밀검사를 받자 "뇌에 악성종양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두 번의 수술로 악성종양을 제거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방사선 치료를 30번 넘게 받아야한다는데, 이제 5번,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지만 남편과 아들을 보며 오늘도 힘을 낸다.

김씨의 가족들은 2007년 초여름부터 병원생활을 하고 있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도 처분했다. 그동안 저축액도 수술비로 모두 소진된 상태. 김씨 큰아들의 아르바이트비가 가족수입의 전부다. 김씨가 희망을 가지고 남은 진료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도움 하나가 절실한 순간이다. (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김강진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초·중·고 1, 2, 3학년 (남경자범대학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생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영지대)
- ▲박영문(영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성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 ▲황진영(유성여고) ▲이정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경고) ▲이상훈(성신고)
-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화고)
-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 ▲신병홍(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 광 대 한의대학
- 대 전 대 한의대학
- 삼화불교 대학

한국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